

스승의 날 '사랑의 사이버 카네이션' 메시지

존경하는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승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교육 여건 속에서도 우리 학생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저도 학창시절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의 사랑과 격려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가 되었고, 말씀과 행동으로 보여 주셨던 가르침 하나 하나는 삶의 지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제 어릴 적 모습을 또렷하게 기억하시는 선생님을 뵈면서 제자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스승의 길은 절제와 인내가 요구되는 힘든 길이지만 보람 또한 큰 길입니다. 우수한 인재, 건강한 사회인을 길러내는 일만큼 가치 있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토록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선생님이야말로 우리나라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가는 주역입니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동량을 키워 가는 데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참여정부는 지속적인 개혁으로 올바른 공교육상을 정립하는 한편 선생님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직이 선망의 대상이 되고, 선생님들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제간의 정이 넘치는 뜻깊은 스승의 날이 되기를 바라며,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